

5

아스카(飛鳥) 지역의 백제문화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지배적인 영향들

(1) 아스카 문화

나라현(奈良縣)에 있는 현재의 아스카(明日香, 飛鳥) 지역은, 서기 710년 이곳으로부터 북으로 약 25킬로 떨어진 헤이조오쿄오(平城京, 나라)에 수도가 수립되기 이전인, 5세기로부터 7세기에 이르는 동안, 일본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였다.¹ 거의 모든 사람들이, 6세기 중반에 시작해서 서기 645년에 끝나는 시기를 “아스카(飛鳥)시대”라고 부르며, 또 일본 역사의 시발점으로 간주한다.

일본 학자들은 아스카 문화가, 백제에서 전해진 대륙의 예술 형식과 기술의 채용으로 특징 지워진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¹이노우에(井上, 1968: 19)에 의하면, 야마토 조정은 새 왕이 즉위 할때마다 아스카(飛鳥)지역 안에서 그 소재를 옮겼는데, “짐작컨대 그것은 죽음이 신성(神聖)을 더럽힌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 같다”는 것이다. 이노우에는 계속한다: “대화개신(大化改新)과 더불어, 중국에서 [이노우에는 한국을 예로 들수도 있었을 것이다] 보아 온 것과 같은 「영구적인 수도」를 갖고 싶다는 희망이 생겼다. . . . 덴무(天武)의 배우자이자 후계자인 지토오(持統)는. . . 아스카 북쪽에 수도 후지와라쿄오(藤原京)를 건설하고 [지금의 나라현 가시하라시에 위치], 서기 694년 그 곳으로 정부를 옮겼

그들은 아스카 문화를, 불교의 전래(서기 538년 또는 552년)로 부터, 혹은 스이코(推古)의 즉위(서기 593년)로 부터 대화개신(서기 645년)까지의 기간인, 소위 “아스카 시대”에만 국한 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타이카 가이신(大化改新) 이후부터 서기 710년의 헤이조오쿄오(平城京) 천도 까지의 기간을 하쿠호오(白鳳) 문화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 학자들은, 서기 669년에서 701년 사이에는 일본 사절이 중국에 파견된 적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서기 645-710년 기간의) 이른바 하쿠호오 문화는, 당(唐)에서 “직접” 문화적, 기술적 영향을 전수 받은 것이 특징이라고 주장한다(KEJ: 1, 107를 참조).

그러나 우리는 야마토 남부의 아스카 지방 전체가 5세기와 6세기를 통해서 일본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 였다는 사실과, 하쿠호오 시대에 일본이 중국의 영향을 특별히 “직접” 전수 받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스카 시대가, 서기 390년 호무다(響田別)의 즉위로 부터 시작하여, 서기 710년 수도 헤이조오쿄오(平城京)의 수립에서 끝나는 전체 시대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쪽을 택한다.²

카타터(KEJ: 1, 105)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서기 400년 경부터 아스카 지방은 대부분 한국(백제)에서 이주해 온 아야(漢)

다.”

²하쿠호오(白鳳) 시대는, 덴무(재위 672-686년)와 관련된 비공식 치세(治世)의 명칭을 따서 명명 되었다. KEJ(3, 88)는 지적한다: “예술적으로 말한다면, 하쿠호오 시대는 당(唐) 나라의 영향을 좀더 강하게 받기는 했지만, 그것은 아스카(飛鳥) 문화의 연속 이었다. . . 하쿠호오 문화는, 대륙의 영향을 받은 불교 미술이 절정에 이르는 덴포(天平) 문화로 승계되었다.” 나라(奈良) 시대는 서기 710년에서 794년까지 이고, 헤이안(平安) 시대는 서기 794년에서 1185년까지이다. 그러나, 보오겐(1982)은 “견당사(遣唐使)는, 비록 마지막 두 차례의 사절이 헤이안 시대의 첫 몇 십년 사이에 파견 되었지만, 보통 나라시대와 연관시켜 생각 된다는 사실과. . . [견당사가 없어진 후]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정규적인 외교 관계는 아시카가 막부(足利幕府)에 의해 재개될 때까지, 사실상 500년 이상 중단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씨족의 여러 계파들에 의해 정착되었다. 8세기 이전 대부분의 일본 군주들의 주거는 —진무(神武)의 전설적인 가시하라 궁, 아스카 기요미하라노 미야(淨御原宮), 수도 후지와라쿄오(藤原京) 등을 포함하여— 아스카나 그 근접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일본서기(서기 720년)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던 것이다.”

지토오(持統, 재위 686-697년)가 서기 694년 수도를 후지와라쿄오(藤原京)에 수립할때까지는, 군주가 바뀔 때마다 궁전이 아스카 지역내의 어느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말하자면,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일본은 영구적인 수도를 갖고 있지 않았었다. 왕이 죽으면, 그의 후계자는 아스카 지역내의 새로운 장소에 궁전을 옮겼던 것이었다. 당시의 궁전이란, 신사(神社)와 마찬가지로 구조가 간단하여, 한정된 양의 노력으로 쉽게 지을 수 있었다.

백제의 영향은 법릉사(法隆寺, 이카루가 데라, 斑鳩寺)의 건축과 미술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절은 원래 쇼오토쿠(聖德) 태자의 명령으로 서기 601년에서 607년 사이에 지어졌으며, 비록 아스카에서 북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있기는 하지만 아스카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³ 루시 와인슈타인(KEJ: 3, 232)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39년의 발굴로, . . . 최초 법릉사(法隆寺)의 주 건물들이 밝혀졌다. 탑과 금당(金堂)의 기초는, 사천왕사(四天王寺) 양식으로 알려진 전통적인 배치로 되어 있었는데, 이 양식은 한국(백제)에서 전해진 것이다.”

서기 606년에 주도된 청동 불상인 아스카 대불(飛鳥大佛)은, 옛 아스카데라(飛鳥寺, 法興寺 혹은 元興寺)터에 안치되어 있다. 존 로젠필드(KEJ: 1, 106)는 지적한다:

“이 절은 서기 588년 백제로부터 불사리(佛舍利) 선물이

³원래 최초로 지어놓은 절은 없어졌지만, 그 건조 당시 모아놓은 아주 훌륭한 불교 미술품들은 아직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빼어난 것은 구다라 관음(百濟觀音)이다. 현존하는 건물은 7세기 말에서 8세기에 걸쳐 건립된 것이다.

도착한 직후 [소가노 우마코(蘇我馬子)에 의해] 세워졌다.
 불사리와 함께 한국의 승려, 사찰 목수(寺工),
 탑신 주조를 위한 금속 주물 기술자,
 기와 전문 기술자(瓦博士), 화공(畵工) 등이 따라왔으며. . .
 서기 596년에 탑이 완성되었다. . .
 그리고 두 승려가 절에 입주하게 되자,
 이 절은 불교 교육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승려의 한 사람은 고구려에서 온 예지(慧慈)였고. . .
 나머지 한 사람은 백제에서 온 예소(慧聰)였다. . .
 1956-57년에 실시된 발굴로. . . 그 탑이 세 채의
 금당(金堂)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 .
 고고학자들은. . . 이런 양식의 건축이
 백제에서도 채용 되었었다고 생각한다. . .
 아스카데라 도처에서, 특히 동쪽 금당과 서쪽 금당에
 이중 석조기단을 사용한 것이라든가,
 기와의 설계, 또는 그밖에 건축의 세세한 부분에서,
 한국(백제)의 영향을 강하게 느낄수 있다.”⁴

와가쯔마 히로시(KEJ:3, 88)는 지적한다: “하쿠라이(舶來)와 하쿠라이힌(舶來品)이라는 말은,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을 지칭하기 위해 나라(奈良)시대 [서기 710-794년]부터 사용 되었다. . . ‘하쿠라이’라는 단어와 ‘조오도 하쿠라이’(외국에서 수입한 최상품)라는 어구는, 「상질 또는 최고 품질」이라는 말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쿠다라나이(下らない)” [쿠다라(백제) 제품이 아니다라는 뜻으로—질이 떨어지는 국내 제품을 나타낸다]와 같은 표현과 함께, 아스카시대 초부터 사용 되었으며, 주로 백제에서 수

⁴김석형(金錫亨, 1969: 460-462)은, 세 채의 금당(金堂)으로 둘러싸인 탑이 있는 사찰 건축 형식이, 평양 근처의 청암리(淸岩里)에 있는 고구려의 한 폐사 터에서 발견 되었다고 말한다. 김정학(金廷鶴, 1981: 307)은, 이런 형식의 사찰 건물은, 부여의 군수리(郡守里)에 있는 한 백제 절터와, 정림사(定林寺)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입된 물품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서기 663년 백제가 망한 이후, 야마토 조정은 중국 문화의 앞선 지식을 입수하기 위해, 당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을 통일한 것이 바로 옛부터 일본의 적이었던 신라였으므로, 일본은 신라와 화해했던 잠시 동안을 제외 하고는, 직접 동지나해(東支那海)를 건너 당으로 가는(즉, 통일 신라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항로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바다를 건너 선진대륙 문화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2) 다카마쓰 고분(高松塚)의 벽화

중국의 많은 사서들은, 백제인의 의상이 고구려인의 의상과 매우 닮았다고만 간단히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좀더 자세하게 기록을 한 역사책도 있다. 북서(北書), 주서(周書), 수서(隋書)에 의하면, 백제 남자의 복장은 고구려 남자의 복장과 대단히 비슷했다 —예컨대, 두 나라의 남자들은 모두 양쪽에 새깃을 꽂은 관을 썼다고 한다. 한편 백제 여성들은 널찍한 소매가 치마 위로 축 늘어진 옷 도리리를 입었다고 한다. 주서는, 백제의 처녀들이 머리를 목 뒤에 땀고(編髮盤於首) 한다발을 장식으로 늘어뜨렸으며(後垂—道爲飾) 기혼 여성은 머리를 두 다발로 땀아서 위로 틀어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북서는, 백제의 미혼녀들이 머리를 두 부분으로 땀아 위로 틀어 올렸다고(盤於頭上)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수서 역시 백제의 처녀들은 머리를 땀아 뒤로 늘어뜨렸고, 결혼한 여성은 머리를 둘로 갈라서 땀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북서나 수서는 고구려 여자가 머리를 땀아 올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북서의 “뒤로 늘어뜨렸다(번髮垂後)”는 표현은, 특히 백제 여성들 에게만 사용되고 있다.¹⁾

나라현 아스카(明日香, 飛鳥) 마을의 남동쪽 구석에는 네 기의 묘소가 있다. 큰 묘는 옛부터 텐무(天武, 재위 673-686년)와 그 부인의 것으로 간주되어 왔고, 나머지는 몸무(文武, 재위 679-707년)

의 묘와, 나카오야마 묘, 그리고 다카마쓰 묘(高松塚)이다. 그 중 다카마쓰 묘는 회칠을 한 벽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 조그만 분묘로, 1972년 3월 21일 나라 가시하라 고고학 연구소에 의해 발굴되었다. 이 다카마쓰 총(高松塚)은 1960년대까지는 문무(文武)의 무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1972년까지 발굴이 금지 되었었다.

다카마쓰 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현실벽에서 발견된 미술 작품이다. 키더(1972)는 지적한다: “만주 압록강 변의 통구(通溝)에 있는 5세기 고구려 고분의 벽화는, 첫눈에 마치 이 [다카마쓰 총] 벽화의 원형처럼 보이지만, 다카마쓰의 그림은 분명히 한개 이상의 출처에서 [그 제작 기법을] 빌려 온 복합적 작품이다.⁵ . . . 다카마쓰 총 벽화중 남자 한 사람의 얼굴은, 서기 685년 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짐작되는 쇼오토쿠 태자(서기 622년에 사망)와 두 아들의 저 유명한 그림에 있는, 태자의 얼굴과 좀 닮은 데가 있다. . . . 한국의 평양 근처에 있는 커다란 고분의 청룡(靑龍)과 백호(白虎)는 다카마쓰 총의 동물들과 분명히 닮았으며, 한국에 있는 가장 비슷한 예이다. . . 그것은 아마도 여황 지토오(持統, 재위 686-697년)의 조정과 관계가 있었던 한 한국인(약 50세의 남자)의 무덤이었을 것이다. . .” 키더(KEJ: 7, 315)는 또 “일부 학자들이 그것을 텐무(天武)의. . . 아들중 하나인 다케치(서기 654-696년) 왕자의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부 에도(江戸)시대의 책에는, 이 무덤이 여전히 문무(文武)의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스미스, 1976, 참조).

키더(1972)는 지적한다: 다카마쓰 총의 벽화에서는 “남자들이 바지 위에 긴 옷도리를 입고 있다. . . 그들 옷의 초록색과 갈색은 아직도 약간 볼수 있다. 여자는 빨강, 초록, 노랑 또는 갈색으로 염색되고 안감을 댄 긴 상의를 입고 있다. 그 안감은 상의 아래와 말아올린 소매끝에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름을 잡은 치마는 땅에

⁵키더(1972)는, 통구(通溝)의 5세기 고구려 고분의, 줄줄이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인물화들이 “딱딱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다카마쓰 총(高松塚)의 인물들의 특징인 우아함이 조금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까지 늘어져 있기때문에, 흰색의 구겨진 자락 밑으로 신발끝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여자들은 머리에 아무 것도 쓰지 않은 것 같고, 남자들은 편하게 잘맞는 검은 두건을 쓰고 있는것 같이 보인다. . .”⁶ 이 대목까지는 다카마쓰 총 벽화의 남녀 의상이, 고구려 고분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성들의 머리 모양을 면밀히 살펴 본다면, 그녀들이 수서(隋書)와 주서(周書)에 묘사된 백제 여성들이 분명해진다. 그들의 머리 모양은 5세기 고구려 고분에 나타나는 여관(女官)들의 머리 모양과 아주 다른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아무도 관찰하지 못했던 사실인 것 같다.

고구려 초기의 고분벽화는, 죽은 부부의 초상을 딱딱하게 정면으로 그리는, 한(漢)나라 무덤 그림으로 부터 영감을 받은 것 같다. 그러다가 이들 무덤 그림은, 고구려 자체의 독특한 형식으로 발전했으며, 죽은 부부도 손님을 맞이한다든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따위의, 활동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었다. 섬세한 선의 모습으로 그려진 윤곽은, 힘찬 붓의 운필로 그은 대담하고 활기에 찬 선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중국 양식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김원용(1986: 395-396)는 지적한다: 타카마쓰 고분 벽화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주제가 중복되지 않고 단순하게 나란히 세워져 있는 고구려 벽화와는 대조적으로, 중복되어 있기때문에 공간적인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 얼굴 모양도 통통하게 살이찐 당(唐) 양식이다. 선과 색상은 매우 섬세하여, 거의 세밀화(細密畵)가 되고 있다.”

김원용(1986: 397-398)은 다시 지적한다: “고구려 영토 밖에서 채색묘(彩色墓)를 찾는다면, 백제의 것이 두군데 있다. 하나는 공주에, 하나는 부여에 있는데, 두개 모두에 사신도(四神圖)가 그려져 있다.”⁷ 그러나 아직까지는 고구려 고분 벽화와 비교해 볼만한 벽

⁶스미스(1976)는, 줄무늬가 있는 주름 치마가, 7세기 초 한국에서 크게 유행했었다고 말한다.

⁷김원용(1986: 394)에 의하면, “사신(四神)은 고구려 왕조가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고구려 무덤 벽화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화가 그려져 있는 백제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고구려와 백제의 무덤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길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소한 이 두 나라의 불교 조각들의 형식을 비교해 볼수는 있다.

고풍스러운 경건한 미소를 띠고 있는 고구려 불상은, 보통 북위(北魏, 서기 386 - 년)의 정형화된 선적(線的) 전통을 나타낸다. 한편 백제 불상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백제의 미소”를 띤, 좀더 표현이 풍부하고 친근하며 동그스름한 얼굴로서, 한층더 자연스러운데, 이것은 분명히 부드럽게 형상화된 남부 중국 불교 조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김원용, 1986: 267 참조). 다카마쓰 총(高松塚)의 벽화는, 백제의 전통이 고구려의 전통과 다른 것만큼, 고구려 고분의 벽화와 상이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⁸

고고학자들은 다카마쓰 총에서, 16각의, 꽃장식을 투각(透刻)한 7세기말 형식의 동경(銅鏡)과 [1평방 센티 당 실의 가닥 수로 밝혀진] 아스카-하쿠호오 시대의 전형인, 옷칠을 한 [관을 썼던] 천을

⁸신라의 무덤에서는, 많은 부장품을 넣은 상자 모양의 목실(木室)을 흙구덩이 속에 묻는다. 그것을 돌무더기로 덮고, 때로는 그위를 다시 높이 20미터가 넘는 거대한 분구(墳丘)로 덮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실은 썩어서 허물어지고, 공간은 떨어져 내린 돌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므로 신라의 무덤은 몰래 도굴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 결과 많은 신라 고분들이 인간의 파괴의 손을 피할수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의 무덤은 [광개토왕의 묘처럼] 돌로 만든 계단식 피라미드 모양의 사각묘이거나, 아니면 흙으로 쌓은 봉분 아래 석실을 만든 무덤이다. 이들 무덤은 모두 현실 속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벌써 오래전에 내용물들을 도굴 당했다. 백제의 무덤도 역시 봉분을 쌓은 석실묘인데, 그 상황은 고구려의 고분 보다는 훨씬 나쁘다. 1971년 공주에서 발견된 무녕왕(武寧王, 재위 501-523년)의 무덤은, 그 주인이 누구이며 언제만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백제왕 능이다. 무녕왕은 남량조(南梁朝)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중국식 벽돌 분묘를 채택했다. 백제 문화는 남중국국의 세련된 문화의 영향을 받아 꽃을 피웠다. 백제에서 만든 벽돌은 그 섬세함과 디자인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북중국국의 문화는 고구려를 거쳐 육지로 전달되었고, 남중국국의 영향은 황해를 건너 온 것이다. 김원용(1986: 175와 194) 참조.

발견했다. 이것들은 이 무덤이 7세기 말이나 8세기 초의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오오진(應神)으로 부터 300여 년이 지난 뒤에도, 일본의 귀족들이, 의복과 머리 모양과 장식에서, 여전히 백제-고구려의 방식을 따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구당서(舊唐書)는, 왜(倭)사람들[다시 말해서 서기 670년 이전의 일본인들]의 의상이 “신라”사람들의 의상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JCC: 142). 당(唐)나라의 이 구당서는, 신라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이 된때로 부터 훨씬 후인 서기 940-945년경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백제”대신 “신라”라고 말하지 않았나 싶다. 아무튼 대부분의 중국 사서들이 삼국(三國)사이의 (언어, 음식, 습관, 行刑은 물론) 복식(服飾)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백제”를 써야할 자리에 “신라”를 써 넣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위지(魏志)동이전은 왜(倭)사람들의 복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들의 옷이란 것은, 긴 옷감을 별로 꿰매지도 않고 서로 묶어서 몸둘레에 걸치는 것이다(其衣 橫幅, 但結束相連, 略無縫). . . . 그들의 옷은 안감을 대지 않은 덩개 같은데, 가운데 구멍을 내어 머리를 넣고 입는 것이다(作衣如單被, 窄其中央, 貫頭衣之). . . . 그들은 실을 뽑고 옷감을 짜며, 세모시와 견직물을 생산한다.” 이시야마 아키라(KEJ: 1, 329)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지금의 가가와 현에서 발굴된, 야요이(彌生)시대[것으로 보이는] 동탁(銅鐸)에 새겨진 인물 조각은, 일종의 판초 같은 것을 걸친 남자들을 묘사하고 있다.”

야요이 시대 동탁에 인각된 인물상들이, 왜의 복장에 대한 위지의 서술을 확인해 주고 있는가 하면, 하니와(埴輪)의 토우(土偶)는, 중기 고분(古墳)시대 까지에 일어난 왜의 복장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이시야마 아키라(KEJ: 1, 329)는 말한다: “4세기와 5세기의 무덤에서 출토된 물건들 가운데는 수많은 하니와 토우가 들어 있는데, 이것들은 당시의 복장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남자들은. . . 긴 [상의] 옷을 입었는데, 직선으로 된

소매를 끈으로 손목과 팔뚝에서 묶고, 넓은 띠로 허리를 냈다. 하의로는, 남자들은. . . 헐렁한 바지를 입고, 무릎 바로 아래를 동여맸다. 여자들은 남자의 셔쓰와 비슷한 「명주」 콤비를 입고. . . 주름이 잡힌 치마를 둘렀다. . . 이와 유사한 복장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 있는 인물에 나타난다. . .”

이춘계(1991: 741)는, 중국의 사서들이 초기시대(야요이 시대)에는 한국 복식과 일본 복식의 차이를 기록하다가, 후기시대(고분시대)에는 그 둘 사이의 유사성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컨대 북서(北書)는, 남자와 여자가 치마와 셔쓰를 입었는데, 남자의 셔쓰는 소매가 짧고(其袖微小), 장딴지는 검은 천으로 동여맸으며, 여자의 치마는 주름이 잡혀 있었다고 기록했다. 북서(北書)는 바로 이 대목에서, 「옛날에는」 남자들이 전혀 바느질을 하지 않은 넓은 천을 몸에 걸쳤으며(古時衣橫幅 結束相連而無縫), 머리를 간단히 두 귀 위로 올려놓았다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일본서기(NII: 121-122)는 스이코(推古) 1년 2월 15일(서기 593년), “법흥사(法興寺) 탑의 기둥 초석 속에 불사리(佛舍利)를 모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상략기(扶桑略記, 히에이 산(比叡山)의 승려 고오엔(皇圓)이 지은 역사서)의 스이코조(推古元年正月條)는, 소가노 우마코(蘇我馬子) 대신을 포함한 백여명 가량의 사람들이 [그 행사 때] 모두 백제 옷을 입고 나타났으며(皆着百濟服), 이를 보고 구경꾼들이 매우 즐거워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석형(金錫亨, 1969: 461)도 참조.] 이춘계(1991: 742-745)는 또 지적한다: 정창원(正倉院)의 연구부장 세키네 신류(關根眞隆)는 1970년대 초, 60점의 의복을 조사해 보고, 한국의 고대 복장과 일본의 고대 복장이 혼연일체 상태(渾然一體狀態)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관찰은 야마토 왜(大和倭) 사람들의 복장이, 전기 고분시대 이후, 다시 말해서 백제 사람들이 야마토 왜를 세운 이후에는, 완전히 백제 복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일본어: 말라요-폴리네시아 영향을 받은 알타이계(系) 어족(語族)

밀러(1980)가 지적하고 있듯이, 대부분의 일본 언어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인상을 준다. 즉, 일본어의 기원에 대해 정설(定說)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 자랑할만한 일이다; 일본어는 그 자체에 신비로운 언령(言靈)이 들어 있는, 아주 특이한 언어가 틀림없다;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는 유사점이 매우 적으며, 이것은 집중적으로 조사해 볼만한 일이다; 만일 일본어와의 친근 관계(親近關係)를 보여 줄수 있는 어떤 언어가 존재한다면, 지리적으로 일본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언어일 것이고, 그것은 기마 귀족의 일족과 같이 어떤 신비로운 존재가, 선사시대의 어느 때인가 일본에 전했을지도 모른다. 예가미(江上, 1989: 85-115)의 무라야마(村山)의 장(章)과 쓰다(津田, 1966: 174)를 참조.^{4, 10)} 그러므로 다카마쓰 총(高松塚) 발굴의 결과, 일본어와 한국어의 비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현상을 보게 된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레윈(1976)에 의하면, 현대 한국어는 중기 한국어에서 직접 나온 것이며, 중기 한국어는 본질적으로 신라의 언어라는 것이다. 레윈은, 비록 고구려어와 신라어가 모두 원시 알타이어 계통(系統), 다시 말해서 원시 부여어 계통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고구려어는 신라어와 대립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고대 백제 왕국의 상류 계급에서 사용한 말”도 고구려어 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왕가와 귀족의 기원이 북쪽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레윈은 또, “일본어는 고구려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핵심에 있어서 일본어는 [고구려, 백제, 예, 맥, 옥저등의 언어로 구성된] 부여어 계통에 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 삼한-신라어와 원(原) 부여-고구려-백제어 사이에는, 그저 방언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차이밖에는 없었던 것 같다. 현대 한국어와 일본어가, 비록 상당한 “어휘의 불일치”가 있기는 하지만, 똑같은 문법 구조

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원 삼한-신라어와 원 부여-고구려-백제어 사이에, 문법 체계상의 차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오노(大野晉, 1960)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불과 200여개 정도 어휘에 있어서만 친근성을 보여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남덕(1985)과 밀러(1980)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오오노의 주장보다 훨씬 더 많은 어휘에서 친근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밀러(1979)는 10여개의 옛 백제 단어 조각들을 분석하여, 명확한 알타이 어원상의 유연성(有緣性, 특히 터어키 어원과의 유연성)을 발견했다. 그는 옛 백제어를 다른 알타이어와 연결시켜 주는 어휘적 증거를 발견 했을뿐 아니라, 음운(音韻, 언어의 발음)과 형태(形態, 단어의 형태)적인 증거도 발견했다. 밀러는 또 옛 백제어가 옛 일본어의 형태적 작용을 그대로 반영 한다는 이론을 확립하는 가능성도 탐구하고 있다.

밀러(1979: 6-7)는 말한다: “만일 옛 백제어의 언어적 증거가, 일본어의 사료에 살아 남아 있다는 사실에 무슨 놀랄만한 것이 있다면, 어찌 그렇게 조금밖에 안남아 있느냐 라는 점일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말하여 오늘날까지 옛 일본어 문헌에서 확인된 단어조각들이 그다지도 적었다는 것은, 진정한 잠재적 가능성이 그것밖에 안된다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까지 그러한 언어학적 사료들에 대한 연구가 게을렀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⁹

조오문(紉文) 및 야오이(彌生)시대의 일본사람들은, 한반도로 부터 강력한 알타이 영향을 받게된 말라요-폴리네시아 언어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강력한 말라요-폴리네시아 영향을 받은 알타이 계통 언어를 사용 했을수 있다. 사실, 일본어와 말라요-폴리네시아어

⁹밀러는 다시 말한다: “일본학계는, . . . 사료에 간직된, 초기의 일본에서 전개된 문화활동의 모든 국면에 있어서, 한국인(백제인)의 중요한 공헌에 관한 증거와 마주 대하기를, 수십년 동안 주저하며, 싫어한 끝에, . . . 이제야 겨우 이 문제를 자유로이, 공개적인 방식으로 연구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다수 일본 학자들도, 그리고 밀러 자신도, 아직은 “객관적” 안목으로 역사를 내다보는 혜택을 누릴수 없는 것 같다.

사이의 어휘의 유사성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어쨌거나, 야마토 왜(大和倭)의 고분(古墳)시대 시작과 더불어, 한국어의 문법체계와 모음조화(母音調和)가, 조오몬 및 야요이 시대의 단편적인 유입과는 달리, 「무더기로」 일본에 도입되었다. 말하자면, 토착 언어가 정복자의 언어에 자리를 내준 것이다.

야마토 지배계급의 언어는, 레윈(1976)이 말하는바 “옛 백제 왕국 상류계급의 언어”였던 것이다. 토착언어의 어휘는 백제인에게서 차용(借用)한 새로운 말로 매우 풍부해졌다. 뿐만아니라 한국인과 일본인은, 고분시대 이래 「아주 똑같은」 문법과 문장 구조를 공유하게 되었다. 사실 한국인에 관한한 (또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인 역시), 한국어와 일본어가 똑같은 문법체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발견하기 위해, 비교 문법(比較文法)에 통달한 언어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일본어를 공부하는 현대의 어느 한국인이나, 혹은 또 한국어를 배우는 어느 일본인이나, 금방 그것을 알수 있다.

윌리엄 그루태어(KEJ: 4. 23)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 학자들 사이에는, 구문법(構文法)상 일본어가 알타이어와의 유연성(有緣性)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과, 유사 이전의 어느 때인가 일본어가 남방의 말라요-폴리네시아어로 부터 어휘와 어형(語形)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데 대해 점점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일본어는 말라요-폴리네시아어와 동일한 어형적(語形的) 구조를 가진 남방 기원의 언어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선사시대(先史時代)의 긴 세월에 걸쳐 대륙으로 부터 건너온 알타이어의 영향을 받았을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밀러(1980)가 주장하고 있듯이, 일본어의 기원은 알타이 계통 언어라고 상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지도 모른다.

밀러가 말하는대로, 우리는 야마토 왜의 출발과 더불어, 일본어가 한국어로 부터 구문(構文)과 문법(다시 말하여 구(句)·절(節)·문(文)에 나타나는 단어의 순서와 그 뜻)에 강한 영향을 받았고, 동시에 일본어가 새롭게 차용된 어휘로 대단히 풍요해졌다고 주장한다. 즉, 한국어와 일본어의 역사적인 연결이 야마토 왜 시대에 크게 강

화 되었다는 것이다. 야마토 왜의 수립 이전에 알타이어를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로 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받아들인 언어상의 충격이란 것은, 고분시대의 집중적인 언어의 접촉으로 부터 이루어진 대규모 차용(借用)에 비교해 본다면, 아주 하찮은 것이었을 것이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고분시대에 백제나 신라에서 온 사람들이, 통역도 없이 야마토 왜 사람들과 대화할수 있을만큼, 충분한 수의 어휘를 공유하게 된 것이 분명하다. 일본서기에는, 야마토 왜의 지배 계급사람들이 백제 사람이나 심지어 신라 사람과 대화했을 때, 그 자리에 통역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일본서기(NI: 325-326)에 의하면, (서기 453년?에) 인교오(允恭)가 사망했을때, 신라왕이 조문사를 보내 왔다:

“신라 사람들은 수도 바로 근처에 있는
미미나시 산과 우네비 산을 항상 좋아했다.
그래서 고토비키 언덕에 도달한 신라 조문사들은,
뒤를 돌아보며 ‘우네메 하야! 미미 하야!’라고 소리쳤다.
우네비 산을 우네메 산이라 잘못 부르고,
미미나시 산을 미미라고 잘못부른 것은
「단지 그들이 일상의 말에 익숙하지 않았기(是未習風俗之言語)
때문이었다」.”

일본서기의 이 기록은 그 당시 한국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서로 의사 소통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 단지 “일상의 말에 익숙해지는 것” 뿐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⁰

이남덕(1985: 72)은, 언어가 변천해 오는 과정에서 문법체계

¹⁰일본서기(NII: 349)는, 덴무(天武) 9년(서기 680년)에 신라인 세 사람이 일본어를 「실습하기 위해」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서기가 이 경우에는 통역(譯者)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을 알수 있다. 일본서기(NI: 350)는 유우라쿠(雄略) 7년(서기 463년?)에 백제에서 “통역”한 사람이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비교 검토해 보아야 한다.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새로운 언어가 토착 대중의 언어를 지배하게 되어 그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지적한다. 이남덕(1985: 73)은 만약 일본어의 문법 구조가 알타이 계통의 하나라면, 이것은 설령 대륙으로 부터 알타이계 언어가 도래하기 전에 그곳에 어떤 토착 종족의 언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언어가 알타이계 언어에 의해 정복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면, 설령 약간의 토착 언어가 어휘면에서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복 언어가 단순히 이들 몇몇 어휘를 “채택”했을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¹¹ 그 토착 언어라는 것은 알타이 계통의 언어 일수도 있고, 말라요-폴리네시아 계통의 언어일수도 있다. 우리는 다만 일본의 토착 언어가, 한국으로부터 「무더기로」 도입된, 알타이 계통 언어에 속하는 백제어 문법 체계에 완전히 자리를 내준 것은, 야마토 왜(大和倭)의 출발과 더불어 였다고 주장할 따름이다.

밀러(1980: 134와 139)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륙[한국]으로부터 밀어닥친 침입자의 파도는, 일본의 기원에 대한 어떠한 포괄적인 설명 에서도 간과될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언어에서 특히 그렇다. . . 일본어는. . . 원 알타이어 계통의 동일한 언어적 특징으로부터. . . 종류가 다른 두개 이상의. . . 역사적 발전을 유산으로 받았다. . . . 그것은 각각. . . 다양한 시점에서 일본 언어의 세계로 진입해온 알타이어 사용자의 상이한 파도들의 결과. . . 일본어 속에 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이남덕 자신은, 자기가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서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어휘의 친근성(親近性)을 발견한 것을 근거로, 한국어와 일본어가 단지 같은 알타이어 계통에 속한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어에서 남방 기원의 하층 언어(下層言語)의 존재도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남덕은 설사 폴리네시아어와 일본어가 실제로 많은 어휘에 있어 친근성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타이 계통인) 일본어의 (비알타이 계통인) 폴리네시아 하층(substratum) 언어에 대한 가설을 세우기 보다는, 차라리 말라요-폴리네시아 언어 자체의 알타이어 계통 가능성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남덕(1985: 75-76)참조.

밀러(1980: 141-149)는 지적한다: “역사는 침략자의 언어가 원주민에게 강요된, 문서에 잘 기록된 사례로 가득 차 있다. . . 이런 방법으로 로마 병사들과 식민지 경영자 들의 라틴어가, 토착 골(Gaul)어의 자리를 차지했다. . . 영어는. . . 인도·유러피안 계통의 게르만 어이다. . . 라틴어는 일글랜드에 도래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로마 군대와 식민지 경영자들에 의해. . . 서 유럽의 모든 지역에 전파되었다.” 밀러(1980: 149-150)는 다시 주장한다:

“고대 한국어가, 특히 옛 백제어가,
일본어 초기 형식의 성립에서, 라틴어가 영어의 성립에서
한것과 거의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 . .
다른 고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옛 백제어도,
그 자체가 알타이어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옛 일본어와는 같은 계통에 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고대국가,
즉 일본의 야마토 왜와 한국의 백제 사이에 존재했던
아주 밀접한 문화적 유대,
특히 그 밀접했던 종교적 유대를 감안해 본다면,
옛 백제 언어가 일본어에게 수많은 차용(借用)과
언어상 모방의 원천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고,
또 이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교류과정을 통해
백제 어휘들이 일본어 속에 스며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다.

두 언어가 동일 계통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일본어 속에 차용되어 들어간 백제의 말은, 간혹 전부터 존재한 옛 일본 어휘와 친근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새로운 어휘들은 어쩌면 그 형태와 뜻 양쪽에서, 다를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의 초기 언어적 접촉은, [그 섬으로 건너간 알타이어의 역사적 층이, 먼저것 위에 새것이 차곡차곡 싸여지는 형식을 통해서] 수많은 상이한 수준의 차용(借用)으로 유도되어 간것 같이

보인다. 아주 최근에 이르기까지, 차용이란 것은 언제나 한국어로 부터 일본어 쪽으로 진행된 것이다.”¹²

(4) 원통 하니와(圓筒埴輪)와 서울(夢村土城)에서 발견된 원통형 토기대

김원용(1986: 231-237)은, 한강 남쪽 강변에 있는 몽촌 토성(夢村土城)이라고 부르는 초기 한성 백제(漢城百濟)시대의 요새(要塞)터에서, 1984년에 그가 발견한 연질 회색 원통형 토기대(土器臺)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토기의 몸체는 세 개의 등거리 테두리에 의해, 세 부분으로 수평 분할이 되어 있다. 주둥이 바로 밑의 상단은 약간 볼록하게 나왔다. 원통형 몸체의 하단도 볼록하게 나왔고, 양각한 네 가닥의 선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그 아래 부분은 깨져서 떨어져 나가고 없다.

후지자와 가즈오는 비슷한 모양의 백제 토기대들의 파편 조각을, 1945년 이전에 역시 몽촌 토성 근처에서 발견 했었다. 후지자와가 발견한 백제 토기대 파편들 중의 일부는, 하단이 깔대기 모양으로 약간 벌어져 있다.¹³ 김원용에 의하면, 4세기의 가야(伽倻) 토기대들은 기본적으로 모양이 같으며, 짧고 벌어진 주둥이, 원통형 몸통, 짧고 볼거진 밑받침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서

¹²밀러(1980: 151)는 지적한다: 그 결과 “[야마토] 일본어가 초기에 한국어(백제어)로부터 차용한 어휘와, 차용한 것은 아니지만 두 언어에서 형식과 뜻이 같거나, 거의 같은 어휘를 구별 하기가 때로는 극히 어렵다. 왜냐 하면 후자는 두 언어에서 제각기 별도로 물려 받은 동일 계통의 어휘이며, 한국어와 일본어가 서로 관련된 공통의 조어(祖語)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 . 문제가 되고 있는 차용어들은, 상이한 많은 역사적인 발전 단계에 속한다. . . 옛 한국어가 일본어에 빌려 준 어휘들의 역사적 단계를 층층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차용 어휘와 제각기 별도로 전승된 [어원적으로 동일한] 친근 관계의 어휘를 구분하는 것 못지 않게 어렵다.”

¹³공주와 부여 [각각 서기 475-538년과 서기 538-660년 기간중 백제의 수도였다] 지역에서 발견된 원통형 토기대들은, 콩팥 모양의 구멍과 아플리케 장식이 있으며, 높고 두드러진 받침을 가지고 있다.

발견된 것은, 두드러지게 튀어나온 테두리와 원통형 음영(陰影)이 가야에서 발견된 것과 다르다. 갈라진 구멍이 있는 높은 기대(基臺) 혹은 받침은, 한국의 삼국시대 특유의 그릇 형식이다. 이들 기대(器臺) 가운데서 테두리가 튀어나온 것은, 서울 지역 백제 도공이 창안한 것이다.

몽촌 토성은 낮은 언덕과 인공벽 —흙과 점토를 섞어서 다진 보루— 에 둘러싸인 40에이커 정도 크기의 원형 토성이다. 두터운 부식토층(腐蝕土層) 밑에 있는 일련의 기둥 구멍들로 미루어 보아, 이 토성은 목책과 바깥 해자(壕宇)로 보호되어 있었던 것 같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몽촌 토성의 연대는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이 연대는 그 곳에서 발견된 백제 도자기 파편 뿐 아니라, 갈색 유약을 바른 서진(西晉, 서기 265-316년)의 석기 조각의 발굴로도 확인되고 있다. 1984년 몽촌 토성에서 출토된 토기대는, 일본 고분시대의 원통 하니와(埴輪)와의 유사성을 보여 주고 있다.

하니와는, 일본 고분시대에 분구(墳丘) 위에 세워 놓았던,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운 주황색 토제 원통(원통 하니와)과, 속이 빈 조각물의 형상 하니와(形象埴輪)를 말한다. 원통 하니와는 키가 큰 원통형(평균 직경이 40-50센티, 높이는 1미터)의 것이고, 형상 하니와는 집, 사람, 짐승, 그리고 여러가지의 군사용, 의식용, 가정용 물품 같은 것을 본떠서 만든 것이다. 아주 초기의 하니와는 원통형이었으나, 후에 와서 형상 하니와가 만들어 졌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비어즐리(1955)에 의하면, 원통 하니와는 봉분 주위의 비탈과 가장 자리에, 흙이 흘러 내리지 않도록 모래 주머니처럼 세워졌던 것이며, 그런 다음 그 둘레에 형상 하니와가 한 줄 더 추가 되었다고 한다. 원통 하니와는, 순수한 원통형과 나팔꽃형으로 나누어진다. 두 종류 모두 구멍이 뚫려 있고, 몸통 둘레에는 수평으로 테두리가 튀어나와 있는데, 밑바닥은 없다. 김원용(1986: 236)에 의하면,

“몸통 둘레에 등거리의 양각 줄
 혹은 돌출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것과,
 불거진 부분 위에 벌어진 입이 있는 것은,
 서울형 토기대와 나팔꽃형 원통 하니와의 공통된 특징이다.
 구멍의 모양이 삼각형, 사각형, 통팔형으로 부터
 후기의 원형으로 바뀌는 기본적인 시간적 변천의 순서는,
 백제나 일본이나 똑같다.
 의식용 그릇이라는 기본 성격도,
 한국과 일본 토기에 공통적이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 .
 나팔꽃형 원통 하니와가 서울형 토기대로 부터
 영감을 받고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¹⁴

단순한 모양을하고, 유약을 바르지 않은 붉으스레한 토기 하지키(土師器)는, 4세기에서 10세기에 걸쳐 일본에서 제조되었다. 바안스(KEJ: 3. 84)에 의하면, “후기 고분시대 동안, 적어도 약간의 하지키가, 야마토 조정 전용으로 베(部)에 의해 생산 되었다고 한다. 하지베(土師部)라고 불려진 이들 집단은 또, 장례용 하니와 조각품의 생산에도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 .” 바안스는 다시 지적한다: “5세기 초에 스에키(須惠器) — 회색 도기가 — 한반도 남부에서 도입되었으며, 그 후부터 하지키와 스에키가 의식용과 가정용으로 함께 쓰이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스에키도 “원사(原史)시대의 봉분에 묻히게” 되었다는 것이다(KEJ: 7. 256).¹⁵

¹⁴일부 사람들은 형상을 조각한 하니와가, 무덤 주위에 커다란 석상들을 늘어 세우는 중국의 풍습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안스(KEJ: 3. 98)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국의 분묘 인물상과 하니와 사이의, 재료·제조기법·무덤위의 건립 위치·주제의 역사적 발전 등의 차이는, 모두 풍습이나 제작기법이 중국으로부터 일본에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¹⁵바안스(KEJ: 7. 256)은 스에(須惠)가 “5세기와 6세기에” 한국인 장인들에 의해 일본에 전해진 “한반도 남부의 전통 도자기의 하나였으며,” 7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겨우 대량 생산이 되어 사회의 많은 부문에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기나이(오오사카, 큐오토, 나라)와 그 주변에서 출토된 초기의 연한 갈색 원통 하니와는, 노천 가마에서 구워졌다. 5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갱요(坑窯)가 한반도에서 도입 되었으며, 회색의 스에키 하니와가 일본에서 생산되기 시작했다. 본래의 하지키와는 크게 달라서, 스에키는 1,000도가 넘는 불에 돌처럼 단단하게 구워졌다. 바안스(KEJ: 7. 256)에 의하면, “초기의 스에키는, 아마도 거의 틀림없이, 아마토 조정에 기초 필수품을 납품한 집단인 베(部)에 의해, 정치 엘리트들을 위해서 생산 되었으며” 이 스에키는 1950년대까지 “조선 도기(朝鮮陶器)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후에 와서 8세기의 만요오슈우(萬葉集)에서 그릇을 의미하는 표현을 본따서, 「스에」라고들 흔히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고 말한다.